

#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의 보완 건의안

의안번호	552
------	-----

발의년월일 : 1999. 9. 16

발 의 자 : 이종호의원외 3인

## 1. 제안이유

'99. 7. 27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제천시 지역 해당부분이 지역의 발전전략이 제외되는 등 제3차 계획안보다 많이 축소되어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가 더욱 황폐해 질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한 바 '99년 12월 정부안으로 확정되기 전에 이런 제 문제를 수정·보완하도록 관계요로에 건의코자 함.

## 2. 주요골자

- 기존 제천시지역발전의 현황과 문제점(6가지)
-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의 문제점(2가지)
- 건의사항(4가지)
  - 중부내륙 및 태백권역의 제천시경제권역으로 설정
  - 제천-원주간 복선 전철화사업계획 조기시행
  - 남한강 수계 도시의 환경친화사업 육성
  - 관광개발 기반구축 조기 가시화

1999. 9. 17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의 보완  
건의문

제천시의회

# 건의문

수신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자유민주연합  
정책위 의장, 한나라당 김영준 국회의원, 제4차  
국토계획 연구단, 건설교통부장관, 충청북도지사

제목 :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의 보완요구

목전으로 다가온 새천년 21세기에 국토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제4차 국토계획연구단을 중심으로  
각계의 전문가, 학회, 연구기관, 중앙·지방정부의 관계공무원  
등이 총망라 참여하여 2년여동안 각고의 노력끝에 완성되어 지난  
7월 27일 발표되었습니다.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 응비할 조국의 국토발전 마스터플랜  
을 마련하는데 참여하신 각 학회와 연구기관, 그리고 전문가  
및 관계관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본 계획안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급변하는 정치·경제적  
국제질서와 여건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 국토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균형적으로 발전  
시키겠다는 순수한 접근과 대원칙에는 그 어떤 이의도 있을 수 없  
으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民·研·官이 함께 계획수립에 참여하였다 하나, 참여자들의 그 분야별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대표성과 계획반영의 형평성에는 이의를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과 욕구가 전부 반영되기는 불가하며, 계획에 포함하는 지역과 사업을 선정하는데 객관적인 평가와 측정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이러한 한계로 인해 지역적 특수성과 정당한 요구가 외면당하거나 무시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금번 발표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은 '99년 12월 정부안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시안으로서 여러과정을 통하여 수정·보완이 가능할 것인 바, 우리 제천지역의 불이익과 소외된 실상을 적시하며 정당한 요구사항을 건의 드리오니 지역 이기주의로 폄하하지 마시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존 제천지역발전의 현황과 문제점

### 가. 각종개발 정책에서 소외

제천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수도권과 광역도시에 중점을 둔 국토개발계획과 개발중심축에서 벗어난 지역이라 하여 적절한 기능을 부여받지 못하고 지금껏 주요 국책사업에서 소외되어 왔음.

### 나. 석탄산업 사양으로 태백상권 붕괴

충북의 북부지역에 위치한 제천은 국토의 남과북, 동과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충북 북부의 중심도시이며 태백권의 관문도시로 기능과 역할을 하며 상업중심 도시로 지역경제가 유지되어 왔으나 석탄산업의 사양으로 태백상권이 붕괴됨으로써 지역경제와 발전이 위축되고 있음.

#### 다. 충주댐 건설로 지역세 위축

1980년대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남한강 상류의 관광 및 부존자원과 금성, 청풍, 한수, 수산, 덕산의 비옥한 경지등 충주호 담수면적의 46.6%인 4,822ha가 수몰되어 지역세가 크게 위축되었음.

#### 라. 충주호 수질보호 정책으로 개발제한

충주댐 건설시 수몰민 이주생계대책과 충주호변 8개 권역의 관광개발을 약속하였으나 수도권 시민의 맑은물 공급정책으로 관광개발사업 약속이 전면 취소 또는 보류되었고 충주호 인근 지역의 개발촉진지구 지정도 유보되는 등 충주호가 지역개발의 장애요인만 되고 있음.

#### 마. 월악산국립공원 지정으로 개발제한

1984년 12월 31일 월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허울만 좋을 뿐 천연의 자연자원 보호라는 미명하에 자치단체나 주민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상 제한과 규제는 물론 해당 주민의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보안림으로 지정되고 충주호로 담수된 252.1km<sup>2</sup>와 월악산 국립공원 구역 111.3 km<sup>2</sup> 등 개발제한면적이 시 전체 면적 882.2 km<sup>2</sup>의 41%인 363.4km<sup>2</sup>에 달하고 있어 행정력만을 낭비시키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쓸모없는 땅이 되어 있음.

## **바. 제천시·군의 통합으로 특성화된 자치단체로 발전하는데 장애**

1995년 도·농 통합형 시군설치 정책으로 시군이 통합되면서 여러 장점도 발생하였지만,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이 혼재되어 있어 경쟁력을 제고시키면서 특성화된 자치단체로 발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

## **2.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의 문제점**

### **가. 지역간·도시간 불균형 해소대책 미흡**

지금까지 수도권과 부산지역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국가의 행·재정력이 집중되다 보니 이 축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고 따라서 인구가 집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여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진하여 낙후되고 인구 유출이 가속화 되는 등 기형적 국가발전이 큰 문제였음에도,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에도 대도시 중심으로 9개의 경제권역이 설정되어 있어 다가오는 21세기 세계적 무한경쟁시대에 차별화되고 특성을 살려 살아남아야 할 지방의 중소도시들에 대한 육성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나. 남한강 수계도시의 발전대책 미흡**

수도권 2천만 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각종 불이익과 개발제한을 받아온 수변도시들에 대하여 보상적 차원의 지원책은 차치하더라도 타지역과 상응한 환경친화적 종합대책이 필요하나, 그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3. 건의사항**

상기와 같이 지역적 여건변화와 함께 정부의 수도권 보호 및

광역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그동안 우리 제천지역은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고, 지역발전이 지연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인바 국가의 장기발전계획인 본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하여 지역간·도시간 불균형이 해소되어야하나, 제천지역을 비롯한 충북 북부지역과 강원 남부의 남한강 상류지역은 본 계획안에 완전 소외되어 불이익이 예견되므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제천 및 태백권”으로 광역경제권을 추가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가. 중부내륙 및 태백권역의 제천경제권역 설정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9대 경제권역이 기존의 대도시 중심권으로 설정되었으며, 중부내륙 및 태백권은 광역권에서 누락되어 있음.

제천은 충북·경북 북부와 강원 남부의 국토중심부로서 내륙지역의 교통요충지인 제천을 중심으로 관광·상공업·물류를 특성화한 “제천·태백권”으로 하여 광역경제권의 하나로 추가 설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 나. 제천-원주간 복선 전철화 사업계획 조기시행

원주-강릉간 복선 전철화와 광주-이천-충주-문경 노선의 신설은 국토의 종합계획상 필요한 사업들로 인정 하지만, 신설사업 못지않게 기존시설의 확충사업 또한 중요하고 투자효율이 높을 것인바, 대안없이 기득권이 박탈당하거나 무시되는 점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면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제천지역은 아시아시멘트를 비롯하여 인근에 5개 시멘트 공장이

소재해 있고 시멘트 생산량이 전국생산량의 56%인 년산 2,600만톤이며, 이중 철도수송이 52%를 차지하고, 태백선·충북선과 연계되는 등 원활한 수송을 위해 제천-원주간의 복선 전철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나, 이의 구체적 실천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조기시행 일정을 확정하여 주길 바랍니다.

#### 다. 남한강 수계도시 환경친화사업 육성

수도권 상수원인 충주호와 남한강 상류수계의 중심인 제천을 축으로 남한강 수변도시를 묶어 환경친화적 지식산업권역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관광개발 기반구축 조기 가시화

월악산, 소백산, 치악산 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청풍호반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해안 및 태백권 관광권역의 관문에 위치한 제천을 내륙관광의 거점도시로 육성시키기 위한 「제천개발 촉진지구」를 조기지정하고, 「청풍랜드」를 조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제천시의회에서 15만 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 드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보완요구가 기필코 반영되어 중부내륙과 제천지역이 더 이상 낙후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내륙 거점도시로 발전하여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999. 9. 17

제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